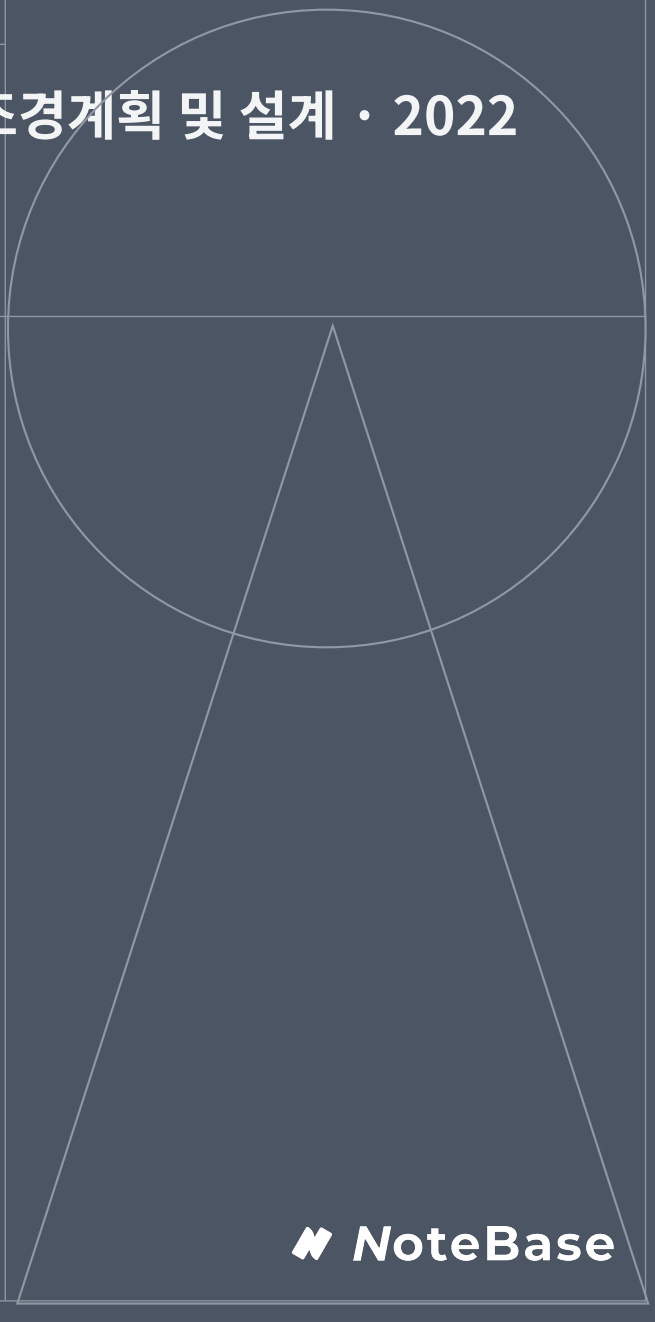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9급 경력 · 조경계획 및 설계 · 2022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9급 경력 · 조경계획 및 설계 · 2022

공무원/서울시/9급 경력 · 조경계획 및 설계 · 2022

1. 포장 설계 기준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표면 배수를 위해 약 2%의 경사도를 확보해야 한다.
   ② 포장은 옥외 공간 성격에 따른 변화 있는 구성이 바람직하다.
   ③ 보행을 억제해야 하는 공간에는 고운 표면의 재료를 사용한다.
   ④ 주차장이나 차량이 통과하는 곳에서는 차량의 하중을 충분히 견디는 재료를 사용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포장 설계에서 배수 경사, 공간 성격에 따른 구성 변화, 보행 유도·억제에 적합한 표면 질감, 차량 하중에 대한 내구성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포장은 보행·차량 통행을 지지하고 배수와 공간 구성을 조절하는 옥외 바닥 시설이다. 표면 배수를 위해 적정 경사를 두며, 이용 목적과 공간 성격에 따라 재료·색채·패턴에 변화를 줄 수 있다. 보행을 유도하는 곳에는 걷기 편한 고운 표면이 적합하고, 보행을 억제하는 곳에는 걷기 불편한 거친 표면이 적합하다. 차량 통행 공간은 차량 하중을 견디는 구조와 재료가 필요하다.

선지별 해설

① O — 포장면에는 빗물이 고이지 않고 배수되도록 약 2%의 경사를 확보하는 것이 적절하다.
② O — 포장은 옥외 공간의 용도와 성격을 드러내므로 재료, 색채, 패턴 등에 변화를 주어 공간을 구분하는 구성이 바람직하다.
③ X — 틀린 표현은 '보행을 억제해야 하는 공간에 고운 표면의 재료를 사용한다'이다. 고운 표면은 보행이 편해 보행을 유도하는 데 적합하다. 올바르게는 보행을 억제할 공간에 거친 표면의 재료를 사용한다.
④ O — 주차장이나 차량 통과 공간의 포장은 반복되는 차량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재료와 구조로 설계해야 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은 '고운 표면'을 단순히 좋은 재료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함정이다. 포장 재료의 적합성은 품질의 좋고 나쁨이 아니라 보행을 유도할지 억제할지에 따라 판단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포장 선지는 기능별로 판단한다. 배수는 경사, 공간 구분은 구성의 변화, 보행 유도·억제는 표면의 매끄러움과 거칠기, 차량 공간은 하중 지지 여부를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고운 표면은 보행 유도, 거친 표면은 보행 억제, 차량 공간은 하중 지지이다.

NoteBase

2. 교목류의 규격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분얼의 수로 표시한다.
② 기본적으로 수고(m) × 근원직경(c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흉고직경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기본적으로 수고(m) × 수관폭(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뿌리분의 크기, 지하고, 가지 수, 수관길이 등을 지정할 수 있다.
④ 기본적으로 수고(m) × 흉고직경(c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수관폭, 수관길이, 지하고, 뿌리분의 크기, 근원직경 등을 지정할 수 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교목류의 기본 규격 표기 항목과 필요에 따라 덧붙이는 규격 항목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교목류의 규격은 기본적으로 수고 *m*와 흉고직경 *cm*을 곱하기 기호로 연결하여 표시한다. 수관폭, 수관길이, 지하고, 뿌리분의 크기, 근원직경 등은 필요에 따라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수고는 지표면에서 수목 정상부까지의 높이이고, 흉고직경은 가슴높이에서 측정한 줄기의 지름이며, 근원직경은 지표면 부근 줄기의 지름이므로 서로 바꾸어 쓰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X — '분열의 수'로 표시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수고와 흉고직경 등 정해진 치수 항목으로 규격을 표시한다.
② X — 기본 규격을 '수고 *m* × 근원직경 *cm*'으로 제시한 부분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수고 *m* × 흉고직경 *cm*'을 기본으로 하고, 근원직경은 필요할 때 추가로 지정한다.
③ X — 기본 규격을 '수고 *m* × 수관폭 *m*'으로 제시한 부분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수고 *m* × 흉고직경 *cm*'이 기본이며, 수관폭·수관길이·지하고·뿌리분의 크기 등은 필요에 따라 추가한다.
④ O — 교목류는 기본적으로 수고 *m* × 흉고직경 *cm*으로 표시하고, 필요에 따라 수관폭, 수관길이, 지하고, 뿌리분의 크기, 근원직경 등을 지정할 수 있으므로 옳다.

오답 포인트

②의 근원직경과 ③의 수관폭도 실제 규격 항목이어서 기본 표기 항목으로 착각하기 쉽다. 핵심은 이 항목들이 필요 시 추가되는 항목이고, 기본 조합은 수고와 흉고직경이라는 점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교목 규격 선지에서는 먼저 기본 조합이 '수고 × 흉고직경'인지 확인한다. 그 밖의 수관폭·수관길이·지하고·뿌리분의 크기·근원직경은 필요에 따라 추가하는 항목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교목의 기본은 수고 H × 흉고직경 B이고, 수관·지하고·뿌리분·근원직경은 필요 시 추가한다.

NoteBase

3. 조경 구조물인 계단과 경사로의 설계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계단의 경사는 30~35°가 적당하다.
② 경사로의 구배는 2% 이내로 제한한다.
③ 신체장애인 휠체어를 위한 경사로의 유효 폭은 1.2m 이상으로 한다.
④ 발판의 높이를 h, 너비를 w로 할 때 2h+w=60~65cm가 적당하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계단과 경사로를 설계할 때 적용하는 경사, 구배, 유효 폭, 계단 치수 관계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계단은 디딤판과 챌판의 반복으로 높이 차를 극복하는 시설이며, 보행 리듬과 안전을 위해 적정 경사와 치수 관계를 적용한다. 경사로는 연속된 경사면으로 높이 차를 극복하는 시설이며, 종단구배는 보행자와 휠체어 이용자가 이동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한다. 휠체어용 경사로의 종단구배는 일반적으로 1:12 이하, 즉 약 8.3% 이하를 기준으로 보며 유효 폭은 최소 $1.2m$ 이상 확보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계단 경사는 일반적으로 30~35° 정도가 보행하기에 적절한 범위이다.

② X — 틀린 표현은 '경사로의 구배는 2% 이내'이다. 올바르게는 경사로의 종단구배를 일반적으로 1:12 이하, 즉 약 8.3% 이하로 본다. 따라서 2% 이내로 제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③ O — 휠체어가 통행하는 경사로는 안전한 이동과 통과 폭 확보를 위해 유효 폭을 최소 $1.2m$ 이상으로 한다.

④ O — 챌판 높이를 h, 디딤판 너비를 w라 할 때 보행 리듬에 맞는 계단 치수의 관계는 $2h + w = 60 \sim 65cm$ 정도이다.

오답 포인트

②의 2%를 경사로의 종단구배 기준으로 착각하기 쉽다. 2% 정도의 완만한 기울기는 배수나 횡단구배와 혼동하기 쉬운 수치이고, 휠체어용 경사로의 대표적인 종단구배 기준은 1:12, 즉 약 8.3% 이하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계단은 '경사 30~35°'와 '$2h + w = 60 \sim 65cm$'를 한 묶음으로 확인하고, 휠체어용 경사로는 '종단구배 1:12 이하'와 '유효 폭 $1.2m$ 이상'을 한 묶음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계단은 30~35°·$2h + w = 60 \sim 65cm$, 휠체어용 경사로는 1:12·폭 $1.2m$이다.

NoteBase

4. 1:1,000의 축척인 지형도에서 $5cm^2$의 실제 면적[m^2]은?

① 5 ② 50

③ 500 ④ 5,000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축척의 길이비를 면적비로 바꾸어 도상면적에서 실제 면적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축척 1:1,000, 도상면적 $5cm^2$

구해야 할 값: 실제 면적 m^2

주의할 조건: 면적은 길이비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축척의 분모 1,000을 제곱하여 적용한다.

사용할 공식

실제 면적=도상면적×(축척의 분모)^2

면적은 가로와 세로라는 두 길이의 곱이므로 길이 축척을 두 번 적용해야 한다. 또한 $1m^2 = 10{,}000cm^2$이다.

계산 과정

1. 실제 면적을 제곱센티미터로 계산한다.

$5cm^2 \times 1{,}000^2 = 5{,}000{,}000cm^2$

2. 제곱미터로 환산한다.

$5{,}000{,}000cm^2 \div 10{,}000 = 500m^2$

따라서 실제 면적은 $500m^2$이다.

선지 판단

① X — $5m^2$는 도상면적의 숫자 5에 축척을 적용하지 않은 값이다. 올바른 실제 면적은 $500m^2$이다.

② X — 면적비와 단위 환산을 올바르게 적용한 실제 면적은 $500m^2$이므로 $50m^2$는 정답보다 10배 작은 값이다.

③ O — 축척의 분모를 제곱하여 적용하고 cm^2를 m^2로 환산하면 $500m^2$가 된다.

④ X — $5{,}000m^2$는 도상면적 5에 축척의 분모 1,000을 그대로 곱한 값으로, 면적비와 단위 환산을 잘못 적용한 결과이다. 올바른 실제 면적은 $500m^2$이다.

오답 포인트

축척 1:1,000의 1,000은 길이비이다. 이를 면적에 그대로 한 번만 곱하면 안 되며, 반드시 $1{,}000^2$을 적용한 뒤 cm^2를 m^2로 환산해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축척 면적 문제는 길이 축척 확인 → 축척 분모의 제곱 적용 → 면적 단위 환산의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길이는 축척비, 면적은 축척비의 제곱, 부피는 축척비의 세제곱을 적용한다.

NoteBase

5. 보행, 놀이, 휴게, 운동공간 등의 옥외공간과 도로나 주차장이 만나는 경계부위의 포장면에 차량 진입을 막을 수 있는 간격으로 배치하는 관리시설의 종류는?

① 단주(볼라드) ② 쓰레기통

③ 관찰시설 ④ 공중화장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옥외공간과 차도의 경계에서 차량 진입을 막는 관리시설의 명칭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단주(볼라드)는 보행공간과 차도의 경계 등에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 차량의 진입을 제한하고 보행공간을 보호하는 기둥형 시설이다. 핵심 키워드는 '경계부', '간격 배치', '차량 진입 방지'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단주(볼라드)는 포장면의 경계부에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하여 차량 진입을 막는 시설이므로 제시된 설명과 일치한다.

② X — 쓰레기통은 폐기물을 모아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시설이므로 차량 진입 방지 기능을 뜻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 '쓰레기통'은 '단주(볼라드)'로 고쳐야 한다.

③ X — 관찰시설은 대상이나 경관을 관찰하도록 마련한 시설이므로 차도와 보행공간의 경계에서 차량을 막는 시설이 아니다. 틀린 표현 '관찰시설'은 '단주(볼라드)'로 고쳐야 한다.

④ X — 공중화장실은 이용자의 위생과 편의를 위한 시설이므로 차량 진입을 제한하는 경계 시설이 아니다. 틀린 표현 '공중화장실'은 '단주(볼라드)'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문제에서 관리시설이라는 넓은 분류만 보고 쓰레기통을 고르면 안 된다. '포장면에 간격을 두고 배치하여 차량 진입을 막는다'는 기능이 단주(볼라드)를 직접 가리킨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시설의 설치 위치와 기능을 함께 확인한다. 도로나 주차장과 맞닿은 경계에 반복 배치되고 차량 진입을 제한한다면 단주(볼라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경계에 줄지어 세워 차량을 막는 기둥은 단주(볼라드)이다.

NoteBase

6. 생활권 공원 중 소공원의 전체 공원 면적 대비 시설 설치 면적기준은?

① 20/100 이하 ② 40/100 이하

③ 50/100 이하 ④ 60/100 이하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생활권공원 중 소공원의 전체 공원면적에 대한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상한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은 소공원의 기준을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의 기준과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공원시설 부지면적은 공원 안에서 조경시설·휴양시설 등 공원시설이 차지하는 부지의 면적을 말한다.

핵심 구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관련 별표 4에 따르면, 생활권공원 중 소공원의 공원시설 부지면적은 공원면적의 20/100 이하이다. 따라서 20/100은 허용되는 최대 비율이며, 이를 초과하는 40/100·50/100·60/100은 소공원의 기준이 아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소공원의 공원시설 부지면적은 전체 공원면적의 20/100 이하이므로 옳다.

② X
40/100 이하는 소공원의 기준보다 큰 비율이다.
틀린 표현: 40/100 이하
올바른 표현: 20/100 이하

③ X
50/100 이하는 소공원에 허용되는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상한이 아니다.
틀린 표현: 50/100 이하
올바른 표현: 20/100 이하

④ X
60/100 이하는 소공원의 기준이 아니며, 소공원에는 그보다 엄격한 상한이 적용된다.
틀린 표현: 60/100 이하
올바른 표현: 20/100 이하

오답 포인트

소공원도 공원시설을 많이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40/100·50/100·60/100을 고르는 것이 함정이다. 이 문항은 건폐율이 아니라 전체 공원면적 대비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비율을 묻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공원 종류와 기준 항목을 먼저 확인한다. '소공원'과 '공원시설 부지면적'이 함께 제시되면 전체 공원면적의 20/100 이하를 적용한다.

암기 포인트

소공원 시설부지는 전체의 20/100 이하이다.

NoteBase

7. 〈보기〉에서 설명하는 조경 공간의 이미지 표현 매체는?

〈보기〉

- 사진 및 다양한 이미지를 오려서 원하는 공간의 이미지를 만들어 볼 수 있다.
- 실제 이미지를 활용함으로써 좀 더 실제적인 공간을 구상하는 데 도움을 준다.

① 모형 ② 콜라주
③ 조감도 ④ 렌더링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사진이나 여러 이미지를 겹쳐 붙여 원하는 조경 공간을 사실감 있게 구성하는 표현 매체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콜라주는 사진·그림·재료 이미지 등 서로 다른 시각 자료를 한 화면에 조합하여 계획 공간의 분위기와 모습을 표현하는 기법이다. 실제 이미지를 활용하므로 구상 단계에서 공간을 비교적 사실적으로 전달하기 쉽다.
모형은 공간을 입체로 축소·제작하고, 조감도는 높은 시점에서 전체 공간을 내려다보며, 렌더링은 설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재질·빛·색채 등을 시각화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모형은 공간과 시설을 축소된 입체 형태로 제작하여 배치와 공간 관계를 검토하는 매체이다. 틀린 부분은 사진과 다양한 이미지를 올려서 공간 이미지를 만든다는 설명을 모형으로 본 점이며, 올바르게는 입체물을 제작하는 표현 매체이다.
② O — 콜라주는 사진 등 여러 이미지를 한 화면에 겹치거나 조합하여 원하는 공간 이미지를 만든다. 실제 이미지를 활용하므로 보기의 두 특징에 모두 부합한다.
③ X — 조감도는 높은 시점에서 대상지를 비스듬히 내려다본 모습으로 전체 배치와 공간 구성을 표현하는 그림이다. 틀린 부분은 사진과 다양한 이미지를 조합하는 기법을 조감도로 본 점이며, 올바르게는 높은 시점의 전경을 표현하는 매체이다.
④ X — 렌더링은 설계안에 재질, 색채, 조명, 그림자 등을 적용하여 완성된 공간의 모습을 시각화하는 작업이다. 틀린 부분은 여러 실제 이미지를 올려 조합하는 기법을 렌더링으로 본 점이며, 올바르게는 설계 모델이나 도면을 바탕으로 사실적인 결과 이미지를 만드는 표현 방식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보기의 '실제 이미지를 활용하여 실제적인 공간을 구상한다'는 문장만 보면 렌더링도 사실적이라는 점 때문에 ④와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사진 및 다양한 이미지를 올려서 만든다'는 제작 방식이 콜라주를 결정하는 핵심 단서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결과가 사실적인지만 보지 않고 제작 방식을 확인한다. 사진·이미지의 겹침과 조합은 콜라주, 축소 입체물은 모형, 높은 시점의 전경은 조감도, 재질·빛·색채의 시각화는 렌더링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사진을 붙여 조합하면 콜라주, 입체로 만들면 모형, 위에서 내려다보면 조감도, 빛과 재질을 입히면 렌더링이다.

NoteBase

8. 〈보기〉의 조경설계 시 미적 효과를 고려한 식재형식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한 공간의 외곽경계 부위나 원로를 따라 식재하여 여러 가지 효과를 얻고자 하는 식재형식이다.
- 일반적으로 관목류를 주조로 하여 식재대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

① 표본식재 ② 강조식재
③ 경재식재 ④ 군집식재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식재 공간의 배치 형태와 주재료를 근거로 식재형식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외곽경계나 원로를 따라 선형으로 배치하고 관목류를 주조로 삼는 형식은 경재식재이다.

핵심 개념

경재식재: 공간의 외곽경계 부위나 원로를 따라 식재하여 경계 형성, 유도, 차폐 등 여러 효과를 얻는 형식이며, 일반적으로 관목류가 주재료가 된다.
표본식재는 수형이나 관상 가치가 뛰어난 수목을 독립적으로 돋보이게 하는 방식이고, 강조식재는 특정 지점에 시선을 모으는 방식이며, 군집식재는 여러 수목을 한 덩어리의 집단으로 구성하는 방식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표본식재'가 틀린 표현이다. 표본식재는 수형이나 관상 가치가 뛰어난 수목을 독립적으로 배치하여 그 개체 자체를 감상하게 하는 형식이다. 보기처럼 외곽경계나 원로를 따라 관목류를 식재하는 형식은 경재식재이다.
② X — '강조식재'가 틀린 표현이다. 강조식재는 형태, 색채, 크기 등의 대비를 이용하여 특정 지점이나 대상에 시선을 집중시키는 형식이다. 보기의 선형 경계 식재는 경재식재이다.
③ O — 경재식재는 공간의 외곽경계 부위나 원로를 따라 식재하고, 일반적으로 관목류를 주조로 구성한다는 보기의 두 특징에 모두 부합한다.
④ X — '군집식재'가 틀린 표현이다. 군집식재는 여러 수목을 집단 또는 덩어리로 배치하여 군락감과 양감을 형성하는 방식이다. 외곽경계나 원로를 따라 관목류를 주조로 배치하는 방식은 경재식재이다.

오답 포인트

'여러 가지 효과를 얻는다'는 표현만 보고 강조식재나 군집식재를 고르면 안 된다. 이 문항의 결정적 단서는 '외곽경계 부위나 원로를 따라'라는 선형 배치와 '관목류를 주조'로 한다는 재료 구성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식재형식 문제에서는 먼저 배치 위치와 형태를 확인한다. 경계·원로를 따라 이어지면 경재식재, 독립된 우수 개체를 돋보이게 하면 표본식재, 특정 지점에 시선을 모으면 강조식재, 여러 수목을 덩어리로 묶으면 군집식재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경재식재는 '경계를 따라, 관목을 주조로' 구성하는 식재이다.

NoteBase

9.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주차방식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주차방식으로 공간 이용이 경제적이며 가장 많은 주차공간(대수)의 확보가 가능하다.
- 배치 시 쿨데삭(cul-de-sac)과 같이 막다른 도로의 주차 공간에서는 차량의 방향 전환을 위해 2.5m 정도의 여유 공간의 확보가 필요하다.

① 평행주차 ② 45° 주차
③ 60° 주차 ④ 직각주차(90°)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주차면이 통로와 이루는 각도에 따라 공간 이용 효율과 차량의 방향 전환에 필요한 여유 공간이 달라진다는 점을 묻는다.

핵심 개념

평행주차는 차량을 통로와 나란히 배치하는 방식이다. 사각주차는 차량을 통로에 비스듬히 배치하는 방식으로, 대표적으로 45 ° 주차와 60 ° 주차가 있다. 직각주차는 차량을 통로에 대해 90 °로 배치하는 방식이며, 같은 길이의 주차 공간에 많은 주차면을 배열할 수 있어 공간 이용이 경제적이다. 막다른 주차 통로에서는 차량이 방향을 전환할 수 있도록 끝부분에 약 2.5*m*의 여유 공간이 필요하다.

선지별 해설

① X — 평행주차는 차량을 통로와 나란히 세우는 방식이므로, 보기처럼 가장 많은 주차면을 확보하는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평행주차'이며, 올바르게는 '직각주차'이다.
② X — 45 ° 주차는 사각주차의 한 형태로, 보기의 최대 주차 대수 확보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45 ° 주차'이며, 올바르게는 '직각주차(90 °)'이다.
③ X — 60 ° 주차도 사각주차에 해당하며, 직각주차보다 같은 길이에 배열할 수 있는 주차면 수가 적다. 틀린 표현은 '60 ° 주차'이며, 올바르게는 '직각주차(90 °)'이다.
④ O — 직각주차는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공간 이용이 경제적이며 많은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막다른 통로의 끝에서는 차량의 방향 전환을 위한 약 2.5*m*의 여유 공간이 필요하므로 보기의 두 설명과 모두 일치한다.

오답 포인트

사각주차는 진입과 출차가 비교적 수월하다는 특징 때문에 효율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문항의 기준은 '같은 공간에서 확보 가능한 주차 대수'이다. 이 기준에서는 90 ° 직각주차가 핵심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공간 이용이 경제적’, ‘가장 많은 주차면 확보’, ‘막다른 통로 끝의 방향 전환 여유 공간’이 함께 제시되면 직각주차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암기 포인트

최대 주차 대수는 직각주차, 쉬운 진·출입은 사각주차, 통로와 나란한 배치는 평행주차이다.

NoteBase

10. 윤곽선 및 표제란의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표제란은 도면의 오른쪽이나 하단부에 위치한다.

② 표제란에는 공사명, 도면명, 범례, 축척, 설계자명, 도면 번호, 설계 일시 등의 사항을 기록한다.

③ 윤곽선은 용지의 가장자리에서 종이 중심부 쪽으로 10mm 정도 안에 그리며, 4면 중 왼쪽만 25mm 정도 안에 그린다.

④ 윤곽선은 균형있고 질서있게 배치하며, 1/100~1/600의 축척을 많이 사용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도면의 윤곽선과 표제란을 설정하는 기준을 도면 내용의 배치 및 축척 선택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윤곽선은 도면을 그리는 유효 영역의 경계를 나타내는 선으로, 용지 가장자리에서 일정한 여백을 두고 긋는다.
표제란은 공사명·도면명·축척·설계자명·도면번호·설계일시 등 도면의 기본 정보를 적는 칸이다.
윤곽선·표제란의 설정, 도면 내용의 균형 있는 배치, 축척의 선택은 서로 구별되는 사항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표제란은 도면의 오른쪽이나 하단부처럼 도면 내용을 방해하지 않고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둔다.

② O — 표제란에는 공사명, 도면명, 범례, 축척, 설계자명, 도면번호, 설계일시 등 도면의 식별과 해석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다.

③ O — 윤곽선은 일반적으로 용지 가장자리에서 종이 중심부 쪽으로 약 10*mm* 안쪽에 긋고, 철할 여유가 필요한 왼쪽은 약 25*mm* 안쪽에 긋는다.

④ X — 틀린 표현은 '윤곽선은 균형 있고 질서 있게 배치하며'이다. 균형 있고 질서 있게 배치하는 대상은 윤곽선 자체가 아니라 윤곽선 안에 들어가는 도면의 내용이다. 올바르게는 '윤곽선과 표제란을 설정한 뒤, 윤곽선 안에서 도면 내용을 균형 있고 질서 있게 배치하며 대상과 용지 크기에 알맞은 축척을 선택한다'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④는 '균형 있고 질서 있게 배치한다'와 '축척을 사용한다'라는 도면 작성 일반 원칙을 윤곽선의 속성처럼 연결한 것이 함정이다. 윤곽선은 배치 대상이 아니라 도면 영역의 경계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의 서술 대상을 먼저 확인한다. 용지 여백과 경계는 윤곽선, 도면 정보의 기록은 표제란, 균형과 질서는 도면 내용의 배치, 비율은 축척에 관한 설명으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윤곽선은 경계, 표제란은 정보, 균형은 도면 내용의 배치이다.

NoteBase

11. 도시공원의 주제공원 중 규모의 제한이 있는 공원은?

① 역사공원 ② 문화공원

③ 수변공원 ④ 체육공원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주제공원별 규모 기준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규모 제한이 없는 공원과 최소면적 기준이 있는 공원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주제공원은 생활권공원 외에 역사·문화·수변·체육 등 특정한 목적에 따라 설치하는 도시공원이다. 규모 제한은 공원을 설치할 때 확보해야 하는 최소면적 기준을 뜻한다.

핵심 구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르면 역사공원·문화공원·수변공원은 규모에 제한이 없지만, 체육공원은 $10{,}000m^2$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제시된 공원 중 규모 제한이 있는 것은 체육공원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역사공원 X
역사공원은 규모 제한이 없다.
틀린 표현: 역사공원은 규모의 제한이 있는 공원이다.
올바른 표현: 역사공원은 규모 제한이 없는 공원이다.

② 문화공원 X
문화공원은 규모 제한이 없다.
틀린 표현: 문화공원은 규모의 제한이 있는 공원이다.
올바른 표현: 문화공원은 규모 제한이 없는 공원이다.

③ 수변공원 X
수변공원은 하천·호수 등의 수변과 접하여 친수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는 장소 기준은 있지만, 규모 제한은 없다.
틀린 표현: 수변공원은 규모의 제한이 있는 공원이다.
올바른 표현: 수변공원은 설치장소 기준이 있으나 규모 제한은 없는 공원이다.

④ 체육공원 O
체육공원은 해당 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며, 규모는 $10{,}000m^2$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규모의 제한이 있는 공원에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수변공원에 별도의 설치장소 기준이 있다는 점을 규모 제한과 혼동하기 쉽다. 이 문항에서는 설치장소가 아니라 최소면적 기준의 유무를 묻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주제공원의 기준을 묻는 문제에서는 설치장소·유치거리·규모를 각각 나누어 판단한다. 제시된 네 공원 중 최소면적 기준이 있는 공원은 체육공원이다.

암기 포인트

역사·문화·수변은 규모 제한 없음, 체육은 $10{,}000m^2$ 이상이다.

NoteBase

12. 놀이시설의 설계요건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그네의 높이는 2인용 기준으로 2.3~2.6m, 길이는 3.0~3.5m가 적당하다.
② 모래밭 설계 시 모래밭의 깊이는 30cm이상이어야 하며, 배수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③ 그네 설치 시 그넷줄의 길이가 180cm인 경우에 그네의 중심점으로부터 180cm 정도 띄어서 인지책을 설치한다.
④ 미끄럼틀 설치 시 미끄럼판과 지면과의 각도는 30~35°가 적당하며, 미끄럼판의 1인용 폭은 40~50cm 정도로 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그네·모래밭·미끄럼틀의 치수와 안전 설계 요건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놀이시설 설계에서는 이용에 필요한 기본 치수뿐 아니라 충돌·추락을 막는 안전공간과 배수 조건을 함께 확보한다. 그네는 움직이는 범위 밖에 안전경계를 두고, 모래밭은 충분한 깊이와 배수성을 확보하며, 미끄럼틀은 경사와 폭을 이용자 수에 맞춘다.

선지별 해설

① O — 2인용 그네는 높이 2.3 ~ 2.6*m*, 길이 3.0 ~ 3.5*m* 정도가 적당하다.
② O — 모래밭은 충격을 완화하고 놀이가 가능하도록 깊이를 30*cm* 이상 확보하며,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시설을 둔다.
③ X — 틀린 표현은 '그네의 중심점으로부터 180*cm* 정도 떨어져 안전책을 설치한다'이다. 안전책은 그네의 전후 운동범위 밖, 즉 중심점에서 그네줄 길이의 2배 정도 떨어진 곳에 설치한다. 따라서 그네줄 길이가 180*cm* 이면 이격거리는 약 360*cm*가 되어야 한다.
④ O — 미끄럼틀은 미끄럼관과 지면의 각도를 30° ~ 35°정도로 하고, 1인용 미끄럼관의 폭을 40 ~ 50*cm* 정도로 한다.

오답 포인트

③은 그네줄의 길이 180*cm*와 안전책의 이격거리를 같은 수치로 연결해 그럴듯하게 만든 선지이다. 안전책의 위치는 줄 길이 자체가 아니라 실제 전후 운동범위와 안전 여유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고정 시설은 제시된 치수 범위를 확인하고, 그네처럼 움직이는 시설은 회전·이동 범위 밖에 안전경계가 확보되는지를 먼저 판단한다. 모래밭은 깊이와 배수, 미끄럼틀은 경사와 폭을 짝지어 확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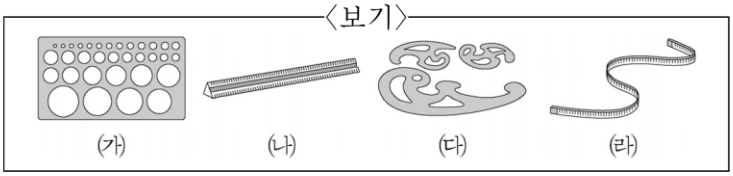
암기 포인트

그네는 운동범위 밖 안전책, 모래밭은 30cm 이상과 배수, 미끄럼틀은 30° ~ 35°·40 ~ 50cm이다.

NoteBase

13. 〈보기〉의 제도용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① (가)는 자유로운 곡선을 그리는 데 사용한다.
② (나)는 실물의 크기를 도면 내에 축소한 치수로 표시하는 데 사용한다.
③ (다)는 크기가 다른 원, 사각, 타원 또는 각종 기호 등을 그릴 때 사용한다.
④ (라)는 평행선을 긋거나 삼각자와 조합하여 수직선과 사선을 긋는 데 사용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제도용구의 형태를 보고 명칭과 용도를 연결하는 문제이다. (가)는 원형 템플릿, (나)는 축척자, (다)는 운형자, (라)는 자유곡선자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가)는 크기가 다른 원을 정확하고 빠르게 그리는 원형 템플릿이다. '자유로운 곡선을 그리는 데 사용한다'는 표현이 틀렸으며, 올바르게는 '크기가 다른 원을 그리는 데 사용한다'이다.
② O — (나)는 도면의 축척에 맞추어 실제 크기를 축소하거나 확대된 치수로 읽고 표시하는 축척자이다. 따라서 실물의 크기를 도면 내에 축소한 치수로 표시할 때 사용한다는 설명이 옳다.
③ X — (다)는 여러 곡률의 가장자리를 이어 매끄러운 불규칙 곡선을 그리는 운형자이다. '크기가 다른 원, 사각, 타원 또는 각종 기호 등을 그릴 때 사용한다'는 표현이 틀렸으며, 올바르게는 '원호만으로 그리기 어려운 매끄러운 불규칙 곡선을 그릴 때 사용한다'이다.
④ X — (라)는 원하는 모양으로 구부려 자유로운 곡선을 그리는 자유곡선자이다. '평행선을 긋거나 삼각자와 조합하여 수직선과 사선을 긋는다'는 표현이 틀렸으며, 올바르게는 '원하는 곡선 형태로 구부려 매끄러운 자유곡선을 그리는 데 사용한다'이다.

오답 포인트

(가), (다), (라)가 모두 곡선과 관련되어 있어 용도를 바꾸어 제시한 점이 함정이다. 특히 구멍이 일정한 원으로 배열된 (가)는 원형 템플릿이고, 불규칙한 곡선 가장자리를 가진 (다)는 운형자이며, 직접 구부릴 수 있는 (라)는 자유곡선자라는 차이를 구분해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도구의 외형에서 먼저 기능을 찾는다. 일정한 도형 구멍은 템플릿, 여러 축척 눈금이 있는 직선 자는 축척자, 고정된 불규칙 곡선 가장자리는 운형자, 구부러지는 긴 자는 자유곡선자로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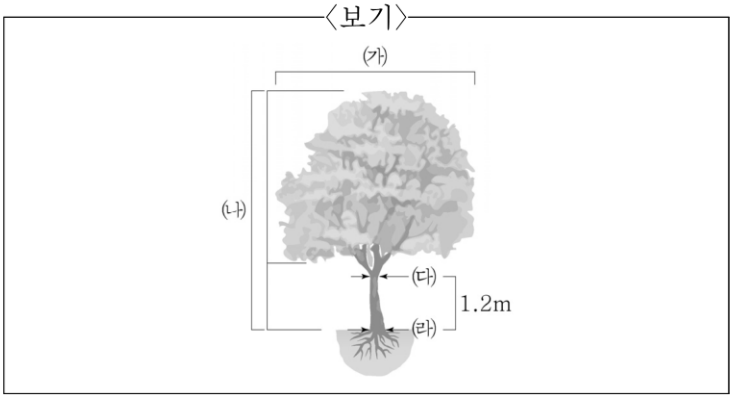
암기 포인트

원형 템플릿은 원, 축척자는 축척 치수, 운형자는 고정 곡선, 자유곡선자는 구부려 그리는 곡선이다.

NoteBase

14. 〈보기〉의 조경 수목의 규격 표시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가)	(나)	(다)	(라)
①	수관고	수관폭	흉고직경	근원직경
②	수관고	수관폭	근원직경	흉고직경
③	수관폭	수고	흉고직경	근원직경
④	수관폭	수고	근원직경	흉고직경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조경 수목의 규격 명칭을 도식의 측정 방향과 위치에 맞게 구별하는 문제이다. (가)는 수관의 가로 폭인 수관폭, (나)는 지면에서 수관 정상까지의 높이인 수고, (다)는 지상 1.2m 높이에서 잰 흉고직경, (라)는 지표면 부근에서 잰 근원직경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가)와 (나)의 명칭이 뒤바뀌었다. (가)는 수관고가 아니라 수관폭이고, (나)는 수관폭이 아니라 수고이다. 올바른 배열은 수관폭－수고－흉고직경－근원직경이다.

② X
(가)·(나)의 명칭뿐 아니라 (다)·(라)의 직경 명칭도 서로 바뀌었다. 지상 1.2m 지점인 (다)는 흉고직경이고, 지표면 부근인 (라)는 근원직경이다. 올바른 배열은 수관폭－수고－흉고직경－근원직경이다.

③ O
(가)는 수관의 수평 너비이므로 수관폭, (나)는 수목의 전체 높이이므로 수고이다. 또한 (다)는 지상 1.2m 높이에서 측정하므로 흉고직경, (라)는 지표면 부근에서 측정하므로 근원직경이다.

④ X
(가)의 수관폭과 (나)의 수고는 맞지만, (다)와 (라)가 뒤바뀌었다. (다)는 근원직경이 아니라 흉고직경이고, (라)는 흉고직경이 아니라 근원직경이다. 올바른 배열은 수관폭－수고－흉고직경－근원직경이다.

오답 포인트

수관폭과 수고는 측정 방향으로, 흉고직경과 근원직경은 측정 높이로 구분해야 한다. 특히 ④처럼 (가)·(나)를 맞게 제시한 뒤 (다)·(라)만 바꾸는 구성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가로 괄호는 수관폭, 지면에서 꼭대기까지의 세로 괄호는 수고로 판단한다. 줄기 직경은 지상 1.2m 지점이면 흉고직경, 지표면 부근이면 근원직경으로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가로는 수관폭, 전체 높이는 수고, 가슴 높이는 흉고직경, 뿌리목은 근원직경이다.

NoteBase

15. 조경 시설물의 기능에 따른 유형 중 휴양(휴게)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실개울 ② 퍼걸러(pergola)

③ 진입광장 ④ 전망대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조경 시설물을 주된 기능에 따라 구분하고, 이용자가 머물며 쉬도록 하는 휴양(휴게)시설을 찾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휴양(휴게)시설은 이용자에게 그늘과 머무를 장소를 제공하여 휴식과 체류를 돕는 시설이다. 퍼걸러는 기둥과 상부 구조로 그늘과 휴게 공간을 만드는 대표적인 휴양시설이다. 반면 실개울은 수경 기능, 진입광장은 진입과 집산 기능, 전망대는 조망 기능이 중심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실개울은 물의 흐름을 이용하여 경관성과 친수성을 높이는 수경시설이다. '휴양시설'이 아니라 '수경시설'로 분류하는 것이 옳다.

② O — 퍼걸러(pergola)는 그늘을 만들고 이용자가 머물며 쉬게 하는 대표적인 휴양(휴게)시설이다.

③ X — 진입광장은 대상지의 입구에서 사람을 맞이하고 이동을 분산·연결하는 진입 및 집산 공간이다. '휴양시설'이 아니라 '진입·광장 기능의 공간'으로 보는 것이 옳다.

④ X — 전망대는 주변 경관을 바라보도록 설치한 조망시설이다. '휴양시설'이 아니라 '조망시설'로 분류하는 것이 옳다.

오답 포인트

퍼걸러와 전망대는 모두 사람이 머물 수 있어 비슷해 보이지만, 분류 기준은 부수적으로 가능한 행동이 아니라 시설의 주된 기능이다. 퍼걸러는 휴식과 그늘 제공, 전망대는 경관 조망이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시설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핵심 동작으로 판단한다. 쉬고 머문다이면 휴양시설, 물을 보고 접한다이면 수경시설, 들어오고 모인다이면 진입·광장 공간, 바라본다이면 조망시설이다.

암기 포인트

퍼걸러는 그늘 아래 휴식, 전망대는 높은 곳에서 조망이다.

NoteBase

16. 조경기능사 제도용지로 주로 사용되는 A3 도면 사이즈는?

① 420mm × 297mm ② 504mm × 420mm

③ 841mm × 594mm ④ 1,189mm × 841mm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조경기능사 제도용지로 주로 사용하는 A3 도면의 표준 크기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A계열 용지는 앞 단계 용지를 긴 변의 방향으로 반으로 나누어 다음 크기를 만든다. 주요 크기는 A0가 1,189*mm* × 841*mm*, A1이 841*mm* × 594*mm*, A2가 594*mm* × 420*mm*, A3가 420*mm* × 297*mm*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420*mm* × 297*mm*는 A3의 표준 크기이므로 옳다.
② X — 504*mm* × 420*mm*라는 치수가 틀렸다. A3는 420*mm* × 297*mm*이고, A2의 표준 크기는 594*mm* × 420*mm*이다.
③ X — 841*mm* × 594*mm*를 A3로 본 것이 틀렸다. 이 크기는 A1이며, A3는 420*mm* × 297*mm*이다.
④ X — 1,189*mm* × 841*mm*를 A3로 본 것이 틀렸다. 이 크기는 A0이며, A3는 420*mm* × 297*mm*이다.

오답 포인트

③과 ④는 실제 A계열 용지 크기이지만 각각 A1과 A0이다. 또한 ②는 A2의 긴 변 594*mm*를 504*mm*로 바꾼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A3의 번호와 함께 두 변 420*mm*, 297*mm*를 한 묶음으로 확인한다. A0에서 번호가 하나 커질 때마다 용지 면적이 절반이 된다는 관계로도 크기의 순서를 검산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A3는 420*mm* × 297*mm*이다.

NoteBase

17. 보행 동선을 설계할 때 고려할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동선 폭은 부지의 규모와 통행량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보행자 2인이 나란히 통행 가능한 너비는 6m 이상이어야 한다.
③ 설계 부지 내에 배치하는 동선은 위계를 두어 주동선, 부동선, 산책동선 등으로 구분한다.
④ 설계 부지의 현황조건을 고려하여 접근이 용이한 곳을 주진입구 또는 부진입구로 선정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보행 동선 설계에서 동선 폭, 동선의 위계와 종류, 출입구 위치를 정하는 기본 원칙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보행 동선은 부지의 규모와 예상 통행량에 맞추어 폭을 정하고, 기능과 이용 빈도에 따라 주동선·부동선·산책동선 등으로 위계를 구분하여 배치한다. 주진입구와 부진입구는 부지의 현황과 외부 접근 조건을 고려해 접근하기 쉬운 곳에 둔다. 일반적인 보행자 2인의 병렬 통행에는 약 1.5*m*의 폭이 필요하며, 6*m*는 이에 비해 지나치게 큰 값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동선 폭은 부지의 규모와 예상 통행량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X — 틀린 표현은 '보행자 2인이 나란히 통행 가능한 너비는 6*m* 이상'이다. 2인의 병렬 통행에 필요한 폭은 일반적으로 약 1.5*m*이며, 6*m* 이상으로 정하는 것이 기본 기준은 아니다. 올바르게는 '보행자 2인이 나란히 통행할 수 있도록 약 1.5*m*의 유효 폭을 확보한다'이다.
③ O — 설계 부지의 동선은 기능과 중요도에 따라 위계를 두어 주동선, 부동선, 산책동선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④ O — 주진입구와 부진입구는 현황 조건과 주변 접근 체계를 고려하여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선정한다.

오답 포인트

②의 '2인 병렬 통행'이라는 상황보다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단정에 끌리기 쉽다. 핵심 오류는 최소 폭을 6*m*로 과도하게 제시한 수치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동선 설계 선지는 '폭은 규모·통행량에 맞는가', '기능별 위계가 있는가', '출입구의 접근성이 좋은가'를 차례로 확인한다. 사람 수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큰 폭이 제시되면 보행 단위 폭과 비교하여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2인 병렬 보행은 약 1.5m, 동선 폭은 규모·통행량, 동선 배치는 위계, 출입구는 접근성이다.

NoteBase

18. 배식 설계 방법 중 자연식 배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수형이 우수하고 중량감을 갖춘 정형수를 단독으로 식재

② 같은 형태와 종류의 나무를 일정한 간격의 직선상에 식재

③ 부등변 삼각형 식재의 삼각망을 순차적으로 확대, 연결하여 식재

④ 시선축의 좌우에 같은 형태, 같은 종류의 나무 두 그루를 한 짝으로 대칭하여 식재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자연식 배식의 불규칙한 구성 원리와 독립식재·열식·대칭식재의 정형적 구성 원리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자연식 배식은 자연 상태와 같은 변화와 비대칭성을 살리기 위해 수목을 불규칙하게 무리 지어 배치하는 방법이다. 부등변 삼각형의 삼각망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서로 연결하면 획일적인 간격이나 좌우대칭을 피하면서 자연스러운 군락을 만들 수 있다.
독립식재는 한 그루의 수형과 상징성을 강조하고, 열식은 일정한 선과 간격의 질서를 강조하며, 대칭식재는 축을 중심으로 좌우의 균형을 강조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수형이 우수하고 중량감이 있는 정형수를 단독으로 심는 것은 한 그루를 강조하는 독립식재에 해당한다. 틀린 표현은 '자연식 배식'이며, 올바르게는 '독립식재'이다.
② X — 같은 형태와 종류의 나무를 일정한 간격의 직선상에 심는 것은 규칙성과 선형성을 강조하는 열식이다. 틀린 표현은 '자연식 배식'이며, 올바르게는 '열식'이다.
③ O — 부등변 삼각형의 삼각망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연결하면 간격과 방향에 변화가 생겨 자연스러운 비대칭 군락을 구성할 수 있으므로 자연식 배식에 해당한다.
④ X — 시선축의 좌우에 같은 형태와 같은 종류의 수목 군을 한 쌍으로 마주 배치하는 것은 축을 강조하는 대칭식재이다. 틀린 표현은 '자연식 배식'이며, 올바르게는 '대칭식재'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나무를 심는다’는 공통점만 보고 판단하면 독립식재·열식·대칭식재를 자연식 배식과 혼동하기 쉽다. 특히 ③의 ‘삼각망’만 보고 규칙적 배치로 오해할 수 있지만, 핵심은 정삼각형이 아니라 변의 길이와 방향이 서로 다른 부등변 삼각형을 확대·연결한다는 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일정한 직선 간격이나 좌우 한 쌍이면 정형적 배식으로 판단하고, 부등변 삼각형·불규칙한 간격·비대칭 군락이면 자연식 배식으로 판단한다. 한 그루의 수형을 강조하면 독립식재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자연식은 부등변 삼각망, 열식은 직선과 등간격, 대칭식은 축의 좌우 한 쌍, 독립식재는 한 그루 강조이다.

NoteBase

19. 〈보기〉에서 설명하는 도시지역 토지의 배치 조건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자연경관이 좋은 곳과 기존의 양호한 산림을 적극 보전해야 하는 곳
- 문화재 등과 같이 역사적 또는 문화적 의의가 있는 곳
- 공항과 시가지의 사이, 간선도로와 철도의 연변, 위험물 주변
- 주요시설의 보호를 위한 곳, 교육시설과의 연계성이 좋은 곳

① 주거 ② 상업
③ 공업 ④ 녹지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도시지역의 용도지역 가운데 자연환경의 보전, 재해 방지, 시설 보호와 공간적 완충을 담당하는 지역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녹지지역은 자연환경·농지·산림을 보전하고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기 위하여 녹지의 확보가 필요한 지역이다. 자연경관과 산림의 보전, 문화재 주변의 보호, 공항·간선도로·철도 주변의 완충, 위험물 주변의 재해 방지, 주요 시설 보호라는 키워드는 모두 녹지지역의 배치 목적과 연결된다.
주거지역은 주거 기능, 상업지역은 상업·업무 기능, 공업지역은 공업 기능의 편리와 증진을 중심으로 배치한다는 점에서 녹지지역과 구별된다.

선지별 해설

① X — '주거'가 틀린 선택이다. 주거지역은 주거 생활환경의 보호와 편의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다. 보기처럼 자연경관·산림을 보전하고 위험물이나 교통시설 주변에서 완충 기능을 담당하는 지역은 녹지지역이다.
② X — '상업'이 틀린 선택이다. 상업지역은 상업과 업무 활동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지역이다. 문화재 주변의 보호와 주요 시설의 완충·연계성을 강조한 보기는 녹지지역으로 고쳐야 한다.
③ X — '공업'이 틀린 선택이다. 공업지역은 공업 생산 활동의 편의와 집적을 위한 지역이다.
공항·간선도로·철도의 연변이나 위험물 주변에서 보호·완충 공간을 확보하는 지역은 녹지지역이다.
④ O — 자연경관과 산림의 보전, 역사·문화적 장소의 보호, 교통시설 및 위험물 주변의 완충, 주요 시설 보호는 녹지지역의 대표적인 배치 조건에 해당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공항·간선도로·철도라는 표현만 보고 교통 접근성이 좋은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을 고르기 쉽다. 그러나 보기의 핵심은 교통 이용의 편의가 아니라 시설 연변의 완충, 위험 방지, 경관·산림·문화재의 보전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배치 조건에서 보전·보호·완충·재해 방지가 함께 제시되면 녹지지역으로 판단한다. 주거 편의는 주거지역, 상업·업무 편의는 상업지역, 생산 활동의 편의는 공업지역으로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보전·보호·완충은 녹지지역의 핵심 신호이다.

NoteBase

20. 〈보기〉의 설계요건과 규격을 가지는 운동시설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규격: 길이 28m, 너비 15m, 높이 7m 이상
- 코트는 바닥이 단단한 직사각형, 코트 주위는 방풍기능으로 식재
- 방위는 남북축을 기준으로 하고, 가까이 건축물이 있는 경우 사이드라인을 직각 혹은 평행배치

① 농구장 ② 야구장
③ 테니스장 ④ 배드민턴장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제시된 코트의 길이·너비·높이, 바닥 형태, 방위 및 배치 조건을 종합하여 운동시설의 종류를 판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농구장은 직사각형의 단단한 바닥을 사용하는 코트이며, 경기 코트의 규격은 길이 28*m*, 너비 15*m*이다. 따라서 보기의 수치와 시설 조건은 농구장에 해당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농구 코트의 규격인 길이 28*m*, 너비 15*m*가 보기에 그대로 제시되어 있다. 단단한 직사각형 바닥과 코트 주위의 방풍 식재 조건도 농구장 설계 조건에 부합한다.
② X — '야구장'이 틀린 표현이다. 야구장은 내야와 외야로 구성되는 부채꼴에 가까운 대규모 경기장으로, 28*m* × 15*m*의 직사각형 코트가 아니다. 올바르게는 '농구장'이다.
③ X — '테니스장'이 틀린 표현이다. 테니스 코트는 중앙 네트를 기준으로 경기하며, 길이 23.77*m*인 코트를 사용하므로 제시된 28*m* × 15*m* 규격과 일치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농구장'이다.
④ X — '배드민턴장'이 틀린 표현이다. 배드민턴 코트는 길이 13.4*m*, 복식 너비 6.1*m*로 제시 규격보다 훨씬 작고 중앙에 네트가 설치된다. 올바르게는 '농구장'이다.

오답 포인트

단단한 직사각형 바닥이라는 공통점만 보면 테니스장이나 배드민턴장으로 혼동하기 쉽다. 이 문항의 결정적 단서는 길이 28*m*, 너비 15*m*라는 수치이며, 이는 농구 코트 규격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운동시설 판별 문제에서는 먼저 길이와 너비를 확인하고, 이어 바닥 재료·네트 유무·경기장 형태를 대조한다. $28m \times 15m$의 단단한 직사각형 코트가 제시되면 농구장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농구 코트는 '28 × 15', 테니스와 배드민턴은 중앙 네트가 핵심이다.

NoteBase